



2014년

##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글\_남궁 은 본지 편집인/영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enamkung@mju.ac.kr

올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과학기술인으로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기명 고등과학원 물리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이들은 반도체 분야와 물리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탁월한 기술혁신과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2014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수여하는 이 상은 국내과학기술자로서는 최고의 명예이다. 시상식은 지난 7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개최식 때 진행됐으며 수상자들에게 대통령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을 수여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불모지에서 성장하기까지 함께 한 훌륭한 후배들이 많은데 이 상을 받아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에 더욱 전념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상으로 여기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되는 기틀을 닦고 좋은 후배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을 통해 더욱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상소감이다. 권 부회장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경쟁력이 취약했던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첨단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DDI, CIS, SIM Card, 모바일 프로세서 등의 분야에서 세계 1위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 연구자 및 경영관리자로서 큰 공헌을 했다. 사람의 두뇌와 비교하자면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을 담아두는 부분이며, 시스템 반도체는 계산을 하는 부분이다. 컴퓨터의 CPU가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다.

권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기·전자공학 석사학위를,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Q. 수상을 축하 드립니다.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뜻 깊은 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인 정부 및 각계 기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실과 산업 현장에서 세계와 경쟁하며 연구개발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선배들께도 감사함과 송구함을 느낍니다. 이번 수상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격려의 의미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1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지금까지 개발한 시스템 반도체 기술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연구와 성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AP(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비롯해 센서 제품, 그리고 공정개발 분야는 거의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반도체와 인연을 맺은 것은 언제부터이고 몰두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반도체와의 본격적인 인연은 1985년 미국의 삼성 반도체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미국과 일본에 크게 뒤쳐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훌륭한 선배님들과 연구에 몰두한 결과 '92년에는 세계 최초로 64M DRAM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Q. 시스템 반도체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낸 전략이 궁금합니다.**

우선 메모리 분야에서 거둔 성과들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사업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적어도 공정분야의 기술에서는 외국 유수업체에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서 큰 힘이 되었고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좋은 성과를 가능하게 했다고 봅니다. 특히 모바일 분야의 빠른 성장에 적절히 대처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Q. 반도체 개발에 매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말씀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연구개발활동은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숭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가 가장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언젠가 다른 형태로라도 성과나 도움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들어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한계 영역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불리면서 IT 산업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술 한계가 극복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 확산, 모바일 헬스케어, 사물 인터넷 시대 도래 및 전기자동차 대중화 등으로 다양한 신규 응용처가 꾸준히 생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간 쌓아 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반도체 신시장에서도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해 삼성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선, 국내 협력업체들과 동반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협력사들로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동 기술개발, 반도체 펀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부 및 산·학·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소재 연구를 통한 글로벌 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삼성전자 내에 미래기술육성센터를 조직, 기술 발굴부터 가공까지 연구와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육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휴먼테크 논문대상을 운영,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학도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1천700여 편의 우수 논문을 시상하였고, 수상자 2천700여 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기술육성재단을 설립해 '13년에 차세대 양자 컴퓨팅 연구 등 기초과학분야의 인재 육성도 지원하고 있고, '10년부터는 대학과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센터를 운영, 과제선정 및 맞춤형 인재양성 측면에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우수 인재들이 꼭 삼성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대학이나 타기업, 연구소 등에서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리더로서 활약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Q.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인재들이 과학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 법학 등 우수인재가 몰리는 분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의 기틀이 되는 기초·응용 과학 연구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들에 대한 범 국가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 이미 장학제도, 인력양성 프로그램, 산·학연구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인재들이 다른 걱정없이 학업과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반도체 개발과 인생 두 가지 측면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 꿈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명실상부한 세계 1위가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시 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위해 제가 지금보다 더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Q. 젊은 후학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에는 최신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제반지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처럼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식과 경험이라는 탄탄한 기반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술만큼 중요한 것은 마음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 될 때까지 노력하는 근성이 필요합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가슴에 새기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 보면 어느새 원하던 목표에 가까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T**